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금강경 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범보종찰(法寶宗刹)로 불리우는 해인사다. 여기에선 매일 저녁 예불 후 <금강경>을 독송한다. 해인강원 학인들과 대중 스님들 100여명의 목직한 목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니 또 하나의 장엄이다. 독경소리는 마치 저녁 햇살을 받아 너울거리는 나비의 날개짓 같다.

<금강경>을 독송하며 나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돈이 많아야 할까? 명예가 있어야 할까? 대체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다. 이러한 질문들을 속으로 거들하고 있는 것은, 질문에 답하는 부처님의 음성이다. <금강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잘 살고자 한다면 잘 사는 방법을 알아

난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게 될 경우 흔히 어떠한 형태이든 그 흔적을 남겨서 어떤 보람이나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여 하신 말씀이 자취를 남기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그 대상과의 대립되는 감정을 공(空)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 혜능(六祖慧能)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은 무념(無念, 생각이 없는 것)으로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 모양이 없는 것)으로 체(體)를 삼고, 무주(無住, 머무름이 없는 것)로써 근본을 삼는다고 했다.

알의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내용 가운데 "응운하주 윤향

무념 무상 무주로 살면 집착없이 잘사는 삶

야 할 것이다. 그 보다 먼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선결문제일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써도 다 하지 않는 것이요,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것이요, 흥망성쇠의 변화가 없는 것이요, 해탈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살고 있는 이는 누구이며, 또 애써 몸소 행하는 이는 누구인가?

현대는 외부세계에서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대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다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며 '마음'으로 회귀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이 즈음 종교가 얘기된다. 모든 종교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가르침은 앞에서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체득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의 가르침과 행위는 사비밀 가능성이 다분하다.

<금강경>에서는 윤리적 실천을 공(空)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남을 위한 보시는 선행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집착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북치심(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이라는 말이 있다. <금강경>의 핵심이다.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생환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마음을 우리는 <금강경>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성숙되어지면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 사는 길인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 방법과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곧 무념이요, 무상이고, 무주인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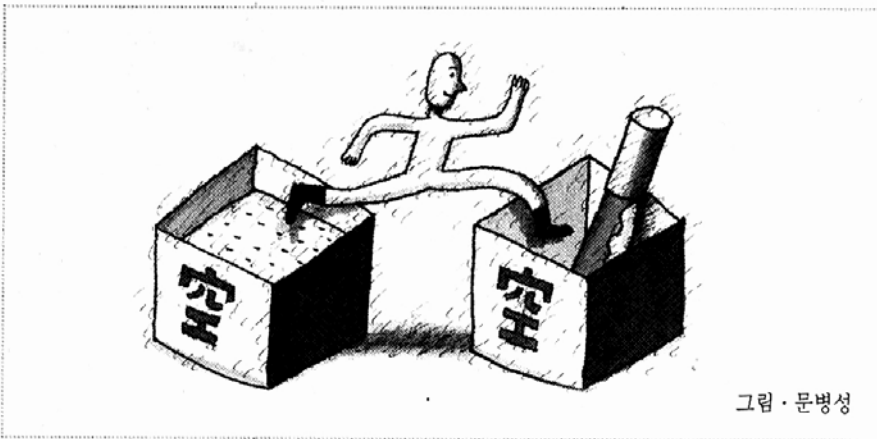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공은 허무아닌 존재의 다양성

불교와 과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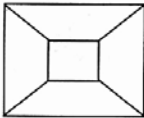
삶의 임상학

구름이 없다면 하늘의 깊음 맛도 느끼지 못한다. 가을 하늘에 먼 구름이 나뭇대로의 모양을 꾸미고 있으니 하늘의 장엄함이 비로소 꽃피게 된다. 구름 한 무리가 낮은 땅에서 높은 하늘에까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한참 후에 보니 용의 형상은 간데 없고 흩어진 조각 구름만이 있었다. 용의 하늘 무늬를 아쉬워하던 모두가 지나간 것이며, 잡하지 않는 흐름이었다.

무상함의 깨달음은 부정의 상상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차 있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다. 구름무늬가 있다 없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원래 없었던 구름 무늬를 없다고 느끼는 일은 쉽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구름무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을 새로이 고쳐먹고 원래 있는 것을 있다고 느끼는 일은 쉽지가 않다. 무상의 깨달음은 있음과 없음 깨달는 것이 아니라, 있게 되는 것과 없게 되어 가는 흐름에 대한 깨달음이다. 결국 무상을 아는 일은 새로운 용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용을 내 몸의 언어로 발산시킬 수 있는 행위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용의 무늬가 없어짐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상이 무한히 그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바로 무상을 아는 일이다. 용의 구름무늬가 없어 졌다고 해도, 하늘은 다시 용궁이나 백두산, 혹은 새털이나 로복 태권 비의 구름무늬가 다시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이 갖게

된 것이다. 무상은 있음의 지위잡이 아니라 있음의 다양성을 슬쩍 말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은 허무와 적멸의 실존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논리이다. 선재라는 사람이 있다. 선재는 이 그림을 터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선재는 작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 그림을 지붕으로 보게 되었다. 선재가 터널이라고 생각했던 과



칼놓여 쟁기 만들듯 무상은 없음과 달라

거의 인지작용에 대하여 후회와 어리석음을 내뱉으면서 현상계의 무상함을 말했다. 어제 마시던 해골의 물이 오늘도 여전히 같은 불이거늘 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선재의 어리석었던 어제가 오늘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마음은, 터널이 지붕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을 보는 마음은 같은 대상이라도 터널로도 볼 수 있고 지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새로운 다양성을 산출하는 마음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있는 없음'이며 '없는 있음'이



최종덕 <상지대 교수>

다. 어렵게 말해서 이를 일러 공의 논리라고 한다.

보통 말하기를 공이란 꼭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어는 것도 고정된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빈 하늘만을 보고 하늘을 쉽게 눈치챌 수 없듯이, 공 역시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하면 너무 어렵고 형이상학이 되기 쉽다. 그래서 공 그 안에서 무엇이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는 일은 단순한 형이상학의 깨달음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면 더 좋다. 공(空)은 대장간에서 무엇인가가 만들고 있는 일이다. 못쓰는 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기도 하고, 쟁기를 다시 녹여서 문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칼은 있는 것이지만 칼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칼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녹은 철물은 여전히 있다. 대상을 말할 때 칼의 입장에서 말할 때와 쇠물의 입장에서 말할 때의 뜻은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는 현대라는 시간의 배를 타고 있다. 그 배는 과학, 이성, 기술, 소의, 자본이라는 몇몇 돛대를 달고 그냥 앞으로 항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과학이라는 돛대가 가장 큰 휘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칼의 입장에서 과학과 공의 세계를 비유하는 일은 피상적이고 현상을 변명하는 일로 그치고 만다. 그러나 쇠물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과 공의 세계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 그럴 때 불교는 고종학이나 박물관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임상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과학과 불교라는 지면공간을 앞으로 펼쳐본다. 필자의 능력에 그것이 가능하면 말이다.

수행과 울력으로 고국의 자유 지킨다

지구촌 불교 망명 티베트 비구니

91년 티베트 라사의 바코르 광장에서 '티베트 자유'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티베트 비구니들. 미국의 시사불교잡지 <트라이시플>이 인도로 망명해 현재 다람살라에 살면서, 티베트의 수행과 문화를 지키고 망명정부의 기금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이들 스님을 특집으로 다뤄 주목된다.

"동족이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광경을 보았는데, 어떻게 내 삶과 가족만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티베트를 방문해 이 광경을 한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20여 일간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히말라야를 넘어, 92년 인도로 망명했다는 린진 초엔이(Rinzin Choenyi) 스님. 바코르 광장 시위로 수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것도 부족해, 감시를 받는 게 싫어서 망명을 결심했다는 스님은 현재 다람살라 외곽에 있는 감비르 간지(Gambir Ganji)에서 수행과 울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곳에는 린진 스님과 비슷한 여정을 걸어 온 80여 명의 비구니가 있다.

감비르 간지는 다람살라의 아니포카(티베트 비구니 사원) 중에서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이 곳에서 자동차로 90여 분 거리에 티로푸르(Tilokpur)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도 60여 명의 망명객이 있다. 수행과 울력은 티베트 비구니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가게일 돕고 거리 홍보 망명정부기금 조성 한몫



◇울력하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있다. 수행은 티베트 불교의 교학과 문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이고, 울력은 티베트의 자유를 되찾고자 앞장선 망명정부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티베트 불교의 교육은 매우 까다롭다. 교육은 주로 경전을 외우는 것인데, 경전을 외울 능력이 돼야 비로소 사미니계를 주고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다. 이후 10여 년 동안 불교 논리학, 인식론, 중관, 구사론, 율장 등을 배우게 되는 데, 이때 비구니(티베트어로 '아니')라는 호

칭이 주어진다.

울력은 주로 아침·저녁의 공부 시간을 피해 뜨거운 햇살이 나는 낮에 한다. 이 울력에는 사찰 일 이외에도 망명정부의 기금 조성 활동이 포함된다. 티베트 비구니들은 이 기금을 주로 다람살라에 있는 가게를 돕거나, 외국 관광객에게 '티베트'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성하는 데,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금은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여성연맹'의 지원금과 함께 망명정부에 전달된다.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의 삶을 조명하 (트라이시플)지 수잔 니콜라이 기자는 "망명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티베트 비구니로서,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불자들에게 티베트 비구니에 대해 관심을 두자"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욕심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이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 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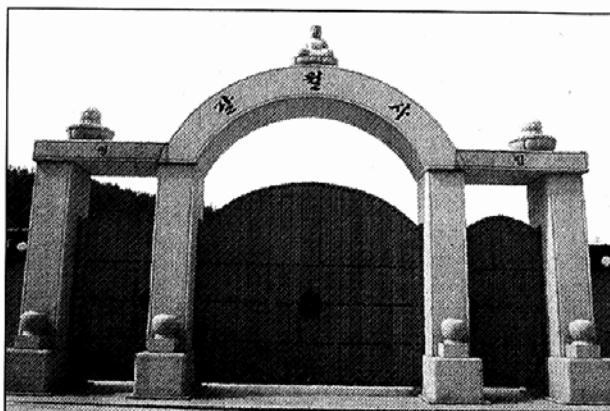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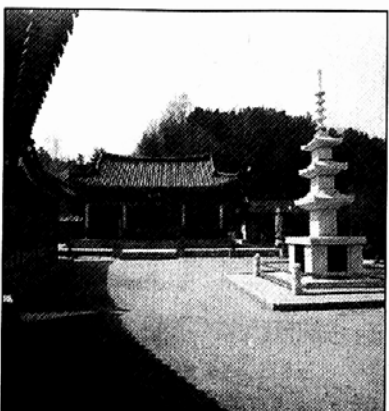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토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벗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공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욕심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울창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재산 지배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정문

· 모시고 싶은곳, 자주 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기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 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